



제151회 발명교실

10월12일 성공사례 등 발표

본회가 주최한 제 151회 발명교실이 지난 10월 12일 발명장려관 연구실에서 개최되었다. 매일 둘째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최 되는 발명교실은 이번에도 1백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발명교실에서는 유나이트 프라스틱(주) 백옥만 사장의 성공사례 발표와 이소남 변리사의 산업재산권 제도 해설 그리고 새생각회 강신목 회장의 발명의 발상기법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발명가의 성공사례를 간추려 소개한다. <김은숙 記>

폐기물을 이용한 불럭체 조성물 및 제조방법

유나이트 프라스틱(주) 대표 백옥만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진짜 사업가는 우리 발명가들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연구를 시작했다.

'요즈음의 우리생활 가운데 한가지 문제점이라면 환경오염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지금까지 플라스틱 재생 작업을 여러번 시도했으나

7년 동안 연구한 끝에 모든 폐기물을 이용하여 도로 포장재로 활용할 수 있고 재활용 또한

요즈음의 우리 생활 가운데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환경오염의 원인인 쓰레기와 폐기물이다.

발명가 백씨는 30년 동안 플라스틱 재생 제조업을 경영하면서 산업폐기물을 이용하여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무엇을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폐기물을 자원화 한다는 것이





용이하며, 경제성은 물론 산업 현장의 환경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종래에는 폐기물 중에서 같은 재질 즉, ABS, PE, PP 등만 재활용 하기 때문에 다시 폐기물로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인성과 강성이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완전 자원화하여 여러가지 블록체를 만들어 보다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하게 된 것이다.

제각기 다른 재질로서 응용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여 10여년 동안의 노력으로 발견하게 된 것이 일명 아스콘이다.

아스콘은 열을 가하면 액체가 되고 냉각을 시키면 경화되는 현상을 갖기 때문에 모든 폐기물을 220°C로 가열 혼합하여 아스콘을 형틀에 투입, 일정한

모양의 조성물을 만들 수 있게 한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공해없이 처리하는 과정을 만들어내는데 모든 것을 투자하여 폐기물을 자원화 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과거에 여러 발명가들이 좋은 제품을 개발하지 못한 것은 경제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여긴 그는, 폐기물을 분류치 않고도 우리 주변을 쾌적하게 꾸밀 수 있는 보도블럭이나 도로포장재등을 만드는데 성공한 것이다.

증가하는 폐기물의 오염은 우리 생활속의 보건까지 해가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가 과거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산업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생산에만 급급하다 보니 폐기물 오

염은 우리 사회에 또 우리 건강에 큰 해를 끼치게 되었다.

'96 전국우수발명품전시회에 참여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백사장의 발명품은 또 한번의 성공을 거두었다.

도전과, 실패, 성공의 길까지 오게 되는 동안에 많은 발명가들의 관심도 깊어졌고 폐기물의 재활용이 우리 생활의 원자재가 되어 오염에서 벗어나 깨끗한 환경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사회와 발명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자신에게도 끊임없는 연구에 희망을 주게 되었다고 말하는 그의 눈에는 매우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교통혼잡으로 복잡해진 거리를 단순히 폐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길거리가 조금이나마 쾌적해질 수 있다면 이는 아름다운 환경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도 이 정도에 만족치 않고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그가 자랑스러워 보였다. **발특9610**

